

현대건설, '국민기업'으로 거듭난다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 현대건설. 현대건설이 채권단의 재무구조개선 계획 이행에 따라 부실을 씻고 '국민기업'으로 거듭난다.

현대건설은 7월말까지 2조 9,000억원의 재무구조개선 계획이 완료되면 부채비율이 연말까지 298.1%로 줄어들고 2002년 182.6%, 2003년 162.3%로 크게 낮아질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올해 영업이익 3,424억원을 비롯해 2002년 3,811억원, 2003년 4,528억원의 영업이익을 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으로서 자존심이 구겨졌던 현대건설이 조속한 경영정상화로 제2의 도약을 준비하고 있다. 이번호에서는 '국민기업'으로 새출발을 준비하고 있는 현대건설을 찾아가 보았다. <취재 / 박 병 기 기자>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든 의지의 역사

현대건설(사장 심현영)은 1947년 창립 이후 반세기 동안 사회간접시설 및 국가기간산업 건설에 앞장서며 국가경제 발전에 경인차 역할을 수행해 왔을 뿐 아니라 해외에서는 한국 건설산업의 위상을 높이고 국위를 선양해 왔다.

자본도,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설립한 '현대토건사'를 시작으로 수많은 역경 속에서도 희망을 잃지 않았던 현대건설. 산업 기반시설도, 경제적인 발판도 전혀 없는 상태였지만 '하면된다'는 현대건설의 의지만은 살아 있었다.

1951년 상현교 복구공사를 시

작으로 월천교, 고령교, 한강 인도교 등 기간산업 건설에 박차를 가하며 경부고속도로, 소양강 다목적댐, 춘천댐, 영월 화력발전소 등 한국 근대화의 디딤돌이 되어 왔다.

현대건설은 국내에서의 활약과 함께 세계로 눈을 돌렸다. 1970년대 중화학공업의 육성정책에 발맞춰 현대울산조선소와 포항제철소 건설로 대형 플랜트 건설의 노하우를 습득하고 75년 바레인 아랍수리조선소와 '20세기 최대의 역사'라고 불리운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공사의 성공적인 건설로 중동진출의 신호탄을 올렸다.

주베일 산업항 공사는 당시 단일 공사로는 세계 최대 규모였고 육상과 해상에 걸쳐 모든 공중을



싱가폴 썬텍시티

종합한 대규모 공사로 종합적인 공사수행능력을 필요로 하는 이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마쳐 현대건설의 추진력과 기술력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한국 건설의 가능성을 열어주는 계기가 되었다.

이외에도 사우디아라비아 안부액화가스 해상터미널, 말레이시아 페낭대교, 싱가포르 마리나센터, 리비아, 이란, 알제리, 쿠웨이트 등으로 영역을 확대해 갔고 당시 해외건설의 주력시장이었던 중동에는 현대건설의 깃발이 어느 곳을 가나 있었다.

현대건설은 80년대 이후 시장 다변화와 기술집약적 시공분야로 새롭게 도약하게 된다. 농경지 및 그린벨트 보전, 서해안개발, 한강 종합개발사업 등을 추진하고 해외 시장 개척에 있어서는 동남아, 북

방지역으로 뻗어 나갔다.

이 시기 싱가포르 썬택시티, 방글라데시 자무나 다목적교 등을 건설하면서 동남아 현지 특성에 따라 CM능력을 키워 나갔고 수주공정의 고급화, 북방지역과의 협력, 국제화 현지화의 추구, 제3국 진출을 위한 선진국과의 제휴에 주력했다.

시베리아 개발, 남극 세종과학기지 건설, 중국 현지 법인 설립, KEDO원자력발전소 1,2호기 착공 등은 북방지역 진출에 대한 현대건설의 정신이 담겨 있는 사업들이다.

무(無)에서 유(有)를 만들어 내는 창조적 역사

현대건설의 불굴의 개척정신, 강인한 의지와 추진력은 국토개발 사업에서 유감없이 발휘되었다.

4,700만평에 달하는 바다를 기름진 영농지대로 바꾼 서산간척지 매립사업이나 영산강 하구언 공사 등은 어떤 공간이라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는 선례를 남겼으며 영토 확대라는 역사에 기록될 사업들이다.

현대건설의 개척의지는 육상에 그치지 않고 바다까지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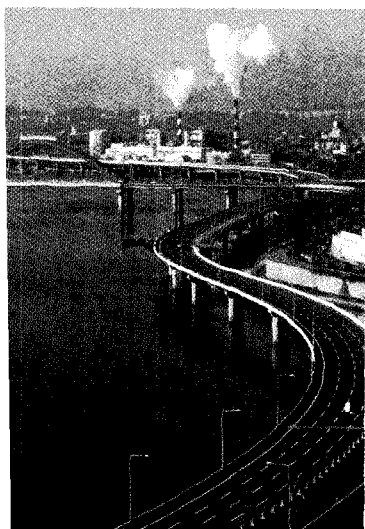


삼성동 아셈센터

6,000마일 대형 해양 운송공법 도입과 허용오차 5% 이내에, 10개월이나 공기를 단축한 사우디아라비아 주베일 산업항 등 대규모 항만공사를 성공시켜 육상에서 바다로 이어지는 국토확장과 항만건설에 새 지평을 열었다.

이와 함께 현대건설이 건설한 대동맥은 한반도와 세계 곳곳에 뻗어 있다. 경제발전의 원동력이 된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하여 경인, 호남, 영동, 남해고속도로와 88고속도로, 중부고속도로 등 국내 대부분의 고속도로와 이라크~시리아~요르단 국경간 고속도로와 북부철도, 싱가포르, 대만, 홍콩의 전철공사, 말레이시아 고속도로 등을 건설하여 세계 각국의 기간산업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또한 국내 최초의 현수교인 남해대교와 닐센아치교의 서강대교, 동양 최대의 사장교인 말레이시아



서강대교

페낭대교, 방글라데시 마무나 다목적교 등 교량건설에서도 독보적인 기술력을 선보였다.

한편 현대건설은 수자원개발 분야에서 높이 30m 이내에서만 경제성이 있다는 통념을 깨고 1968년 높이 123m나 되는 동양 최대의 사력댐인 소양강 다목적댐을 성공시켰고 이후 담양댐, 대청댐, 충주 다목적댐 등의 건설로 일찍부터 국가 경제개발의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

자연에 순응하는 것에서 한걸음 나아가 자연을 개발하여 생활을 풍요롭게 만들어온 현대건설은 해외 시장에서도 말레이시아 트랭가누댐과 케냐르댐, 파키스탄 타르벨댐, 파푸아뉴기니아 용키댐, 미얀마의 나웅자트 다목적댐 등의 건설로 세계 무대에서 한국의 기술력을 완전히 인정받기에 이르렀다.

한국대표에서 세계 초일류 기업으로

21세기 건축은 정보화시대에 알맞는 인텔리전트 기능과 인체공학적 구조, 공간의 효율적 활용과 편리함, 그리고 예술성을 동시에 충족시켜 줄 건축물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에 업무용 빌딩, 의료시설, 호텔, 스포츠 문화시설, 리조트사

업 등 수많은 건축공사에서 노후를 쌓아온 현대건설은 국내 최고 높이의 첨단 인텔리전트 빌딩 하이페리온(69층)을 통해 꿈의 공간이라 불리는 인텔리전트 빌딩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줬다.

하이페리온은 현대건설에서 자체 개발한 건축설계통합프로그램(HASS)으로 미리 건물의 안전성과 경제성을 고려하여 설계되었고 리히터 규모 6~7의 강진에도 견딜 수 있는 내진설계, 100년 재현 주기의 강풍에도 안전한 내풍설계가 되어 있다.

또한 초고속 정보통신, TV 인터넷, 청정수 공급시스템, 부스터 펌프방식의 급수시스템, 실별 개별온도제어 및 환기시스템 등을 갖추고 있으며 아름다운 정원과 휘트니스 센터, 백화점, 대형 영화관, 문화센터, 식당가까지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을 갖추고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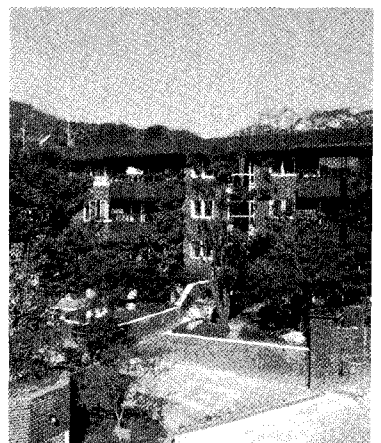
다. 상상을 초월한 최첨단 공간을 현대건설이 현실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미적 가치, 첨단 기능, 시대를 뛰어 넘는 견고함, 이 세가지 조건이 맞지 않으면 현대건설의 건축물이 아니라는 자부심으로 사우디아라비아 내무성 본청, 카타르 도하호텔, 싱가포르 마리나센터, 싱가포르 동부종합병원 등을 건설하여 해외시장에서 현대건설의 건축물은 기술과 품질 뿐 아니라 높은 예술적 가치를 국제적으로 인정받아 왔다.

특히 싱가포르 썬택시티 건설은 세계시장에서의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준 좋은 예로 이 프로젝트 수행 시 푸쉬업(Push up) 공법으로 현장자동화를 선도했고, 싱가포르 건설개발위원회에서 제정한 상업 및 사무용 건물설계 부문에서 최우수 건물설계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구기동 빌라



평창동 빌라

국내에서는 보는 각도에 따라 360도 입면의 모습이 제각각 새로운 아름다움을 자아내는 경주 호텔현대 건설로 92년 제1회 한국건축문화대상에서 본상을 수상했으며, 93년 제12회 대한민국건축대전에서 '93한국건축가협회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이밖에 현대건설은 70년대 국내 최초로 고리 원전 1호기를 건설함으로써 원자력시대의 막을 올렸고 79년 세계 최고의 공신력을 갖는 미국기계기술자협회(ASME)로부터 원자력부문의 기술력을 공인받았다.

이후 고리 1, 2, 3, 4호기, 월성 1, 2호기, 영광 1, 2, 3, 4호기와 영광 5, 6호기, 북한경수로 1, 2호기 등 국내 원전 대부분을 시공한 현대건설은 영광 3, 4호기를 통해 원전기술 자립도 100%를 달성하였고 국내 최초로 고리 1호기 증기발생기교체 공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하여 원전보수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였다. 여기에 북한에 건설중인 한국형 원자력 KEDO 원전 시공도 주도하고 있다.

‘밀레니엄 선진화 아파트’로 주거문화 선도

현대건설의 ‘밀레니엄아파트’

는 말 그대로 모든 사람이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새 천년의 아파트이다. 21세기는 주거의식의 선진화로 주택을 문화적, 정서적, 환경적 욕구충족의 수단으로 인식하고 주거를 통한 삶의 질 향상 노력의 확산과 공동체의식의 증대로 가치관, 소득,

레저활동 등의 터전으로 활용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이와 같은 시대적 요구에 따라 현대건설은 자체 브랜드를 개발하고 21세기 주거문화를 선도해 나갈 계획이다.

첫번째 브랜드가 40~50대 전문직을 주 타겟으로 서울이나 서울인

인터뷰 / 심현영 현대건설 사장

“돈되는 공사만 수주한다”

“1인당 매출액을 15억원으로 끌어올리겠습니다. 무엇보다 수익성을 기준으로 한 공사 수주에 초점을 둘 계획입니다” (현대건설 사장 심현영).

취임 두달을 맞은 심현영 현대건설 사장은 ‘고객 우선’과 ‘열린 경영’을 실천하기 위해 소비자와 임직원들이 자신에게 직접 연락할 수 있도록 팩스(02-746-2120)와 이메일(hyshim@hdec.co.kr)도 개설했다.

그는 또 국내외 400여개에 가까운 공사현장도 일일이 행하고 있다. 특히 공사 일정이 늦어지는 등 문제가 있는 30여개 현장의 경우 주간 단위로 보고를 받으며 정상화를 채근하며 7월부터는 전국 현장을 순회 방문하고 있다.

이와 함께 감사원 출신 고위 공무원을 스카우트해 감사실을 대폭 강화했다. 토목, 건축, 자금 등 주요 사업부문의 외부 전문가 5명을 영입해 부문별로 경영 방침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감독하도록 했다.

그의 현대건설 살리기 노력은 직원 인사에도 반영되고 있는데 건설업은 기본적으로 사람을 자산으로 한 업종이라는 신념을 바탕으로 전문가 양성 시스템을 도입했다. 특히 과장급 이상 직원에게 자신이 원하는 전문분야를 신청토록 하고 전문적인 업무 노하우를 쌓도록 배려할 방침이다.

대규모 감원과 조직개편이라는 뼈를 깎는 구조조정을 해야하는 현대건설 그 중심에 있는 심현영 사장. 그는 자신의 출퇴근 시간을 아끼려고 경기도 용인시 기흥읍에 위치한 70평형대 빌라에서 나와 서울 종로구 청운동에 위치한 27평형 아파트에 전세로 옮길 정도로 ‘현대건설 살리기’에 여념이 없다.



근의 노른자위 땅에 짓는 호텔형의 고품격 아파트로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빛의 신'이라는 말로 거대함과 웅장함을 상징하는 '하이페리온(Hyperion)'이 그것이다.

그리고 대단위 아파트 단지는 고향같이 포근하게 인간을 담을 수 있는 인간중심 아파트로서 풍부한 녹지공간과 첨단 편의시설을 갖추어 가족이 함께 넉넉한 생활과 여가를 즐길 수 있는 편안한 느낌의 '홈타운(Hometown)'을 개발하여 지난해 부터 사용하고 있다.

이러한 선진국형 첨단아파트를 위해 외국 설계회사와 전략적 제휴관계를 맺고 모던하면서도 동양적인 분위기인 고품격 인테리어와


향, 조망, 스카이라인 등을 복합적으로 고려한 신개념의 주동배치, 기존 비개성적인 일자형 모양을 탈피하기 위한 타원형·중정형·자유곡선형의 아파트 동 형태의 변화, 라이프스타일 변화에 대응하는 다양한 공간제시와 가변형과 단독주택의 분위기를 살릴 수 있는 실내정원, 거실과는 구분되는 가족실 등의 설치로 설계 선진화 방안을 마련했다.

또한 21세기 화두가 인터넷, 사이버아파트인 만큼 아파트 신상품에 대하여 단지내 LAN환경의 구축과 광케이블 배선으로 정보통신부 인증 최고급인 '초고속정보통신 건물 1등급 아파트'로 정보화 세계를 더욱 앞당기고 가정내에서

는 입주자가 영상전화, 인터넷, 전자상거래 및 다양한 생활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아파트의 멀티미디어, 디지털화를 구축하고 있다.

이와 함께 방법과 방재를 위해서는 단지내 자체 무인경비설비와 전문경비업체가 연계되어 입체적인 첨단 통합경비설비의 구축과 내진설계, 품질경영 시공으로 진도 6~7의 지진에도 견딜 수 있는 안전한 아파트를 공급하고 있다.

60년대 초반 국내 최초의 고품격 아파트인 마포아파트를 시작으로 압구정동, 구의동, 신대방동, 김포 청송마을, 개포동 혜미리에 이르기까지 국내 주거문화를 선도해 온 현대건설은 해외에서도 싱가포르 시그니치 파크 콘도, 메이로드 콘도 등 아름답고 편리한 주거공간을 창조해 오고 있다.

93년부터 시작된 '무하자운동', 아파트 입주 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현장점검제도', 그린빌딩 인증에 의한 환경친화적 주거단지 개발 등 고객만족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현대건설은 복합화주택, 소형편의주택, 사이버주택, 주문식주택, 전원주택 등 고객의 다양한 욕구를 충분히 반영시킨 설계와 완벽한 시공, 그리고 철저한 사후 관리로 21세기 주거문화를 선도해 간다는 자부심에 차 있다. 



일산 호수마을